



# 광주, 평화의 물결 속으로

**GWANGJU 2019.**  
제 18회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9. 7.12~2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젤라 봉 카르노(GBK) 수영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예선 경기. 한국 김수지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빛고을서 세계인의 축제

200여 개국 1만5천여명 참가  
남부대·염주체육관·조선대  
여수 해양공원서 실력 겨뤄



경영과 다이빙 종목이 열리는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연면적 1만9천238㎡,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관람석은 3천290석을 갖췄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남북 정상이 2023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등 스포츠·문화 분야 교류를 약속하면서, 내년에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북한선수단 참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또한 세계 수영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대회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대회' 가능성 커져=광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북한 참여와 남북단일팀 참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4항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강조하고 세부실행 계획까지 내놓았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적극 진출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도 남북이 함께 뛰기로 했다.

세부실행 계획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광주시는 이날 평양선언으로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북한선수단이 출전하거나 남북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국 수영 대표선수들이 출전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대회기간 200여 개국 1만5000여명이 참가해 남부대·염주체육관·조선대·여수엑스포 해양공원 등지에서 실력을 겨룬다.

그동안 광주시는 내년 대회에 북한선수단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 집행부와 정부 등에 북한이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8 스포츠어코드에서 국제스포츠 단체인 '피스앤스포츠'와 북한선수단 참가를 비롯한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FINA 대표단도 북한이 참가한다면 경비를 특별 지원하고 방송중계권 무상인도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의회도 김용집 의원의 제안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집행부와 조직위원회를 돕기 위해 나섰다.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에 우수한 선수가 많은 북한이 광주대회에 참가하면 대회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도 있다.

◇마스터즈 대회 준비도 순조=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터즈대회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영선수권대회가 각국의 대표 선수들의 각축장이자 마스터즈 대회는 세계 수영인이 즐기는 축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FINA 마스터즈위원회 위원들이 광주를 방문해 선수촌과 경기장 현장을 둘러보고 대회준비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모하메드 디

울 FINA 부로 리에중, 도린 티보즈 위원장, 골 골드스타인 부위원장, 에드워드 에벨리 명예간사, 가보 카파티 FINA 사무국 담당관 등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마스터즈 선수들의 경기장 접근성과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남부대 수영장과 여수해양엑스포공원 등 경기 예정지를 방문했다.

대회 홍보도 본격화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시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공항 등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한다.

또 소셜미디어와 광주투게이트 및 동광투게이트 등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귀성객을 대상으로 수영대회 붐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계 유명 선수들의 현장 훈련이 시작되는 등 서서히 세계수영대회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오픈워터수영(Open Water Swimming) 남자 10km 금메달리스트 네덜란드 페리 위르트만(Ferry Weertman)이 지난 17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오픈워터수영 경기장이 있는 여수 등을 찾아 현장 훈련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젤라 봉 카르노 아쿠아틱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수영 개인혼영 여자 4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서영이 역영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북한 선수단 참여 성공대회 이끌겠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 남과 북 정상 역사의 회담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조 사무총장은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시작으로, 남과 북 평화·화해 무드가 조성됐고 남북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등으로 북한의 참가는 더욱 자연스러워졌다”면서 “그동안 FINA·정부 등에 북한의 광주대회 참가 관련 지속협조를 요청했고, FINA

역시 북한 선수단이 광주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위는 북한의 참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숙박, 교통, 안전, 대회운영 등 북한의 참가를 전제로 한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그는 “남북 함께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인 축제로서 스포츠를 통한 화해와 협력 등을 통해 평화를 가장 극적으로 실현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광주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FINA 회원국으로 2015년 카잔대회 이어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메달(다이빙 은메달 1, 동메달 1)을 획득하



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내년 광주대회에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그동안 FINA 집행부와 정부 등에 북한이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해오고 있고 특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스포츠와 문화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기관 등과 협의의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수영선수단에 전지훈련 장소 제공하고, 북한 선수단 참가할 경우 단일팀 구성 등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평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9월 23일~25일은 추석휴무입니다. 26일(수)부터 정상적 모시겠습니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